중2-1
국어
미래엔(민)

2027 중2-1 국어 미래엔(민) | 1(1) 시의 화자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나무와 그림자」와 「훈민가」는 각각 자연물(나무)과 평범한 백성(농민)이라는 화자를 내세워 시의 주제와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따라서 화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그에 대응하는 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 그리고 화자의 특성이 시의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가 핵심적으로 출제됩니다. 각 시에서 화자의 시선에 따라 시적 대상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미로 쓰였는지 그 상징성을 꼼꼼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화자의 특성이나 시적 상황이 다른 낯선 외부 작품과 원작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복합 유형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1~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땅에 누워만 있던 내 그림자가
일어섰어

나랑 하루 종일
마주 보게 됐지

㉠바람에 흔들리는 내가
꽤 괜찮아 보여

㉡해가 뜨는 내일을 기다리는
버릇도 생겼지 뭐야

그게 다 내 앞에
높다란 벽이 생기고부터야

– 변은경, 「나무와 그림자」

1. 이 시의 화자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작품 표면에 화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은 채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② 관찰자의 입장에서 특정 대상이 겪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③ 작가 자신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인물로 현실 세계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다.
④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작품 속에서 목소리를 내는 주체로 내세우고 있다.
⑤ 자신을 가로막은 존재에 대해 분노하고 원망하는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2. 이 시의 짜임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1연: 수평으로 누워 있던 화자의 그림자가 벽에 비쳐 수직으로 일어서게 됨.
② 2연: 벽에 비친 그림자로 인해 화자가 자신의 모습을 온종일 응시할 수 있게 됨.
③ 3연: 바람에 흔들리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느끼게 됨.
④ 4연: 그림자와 다시 마주하기 위해 해가 뜨는 아침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됨.
⑤ 5연: 화자가 그림자를 마주하는 긍정적 변화를 겪게 된 원인이 높다란 벽의 등장 때문임이 밝혀짐.

3. 이 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①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사라져 맑은 하늘을 자유롭게 보게 되었다.
② 거센 비바람을 맞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③ 앞을 가로막는 커다란 대상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④ 주변의 다른 나무들과 경쟁하며 더 많은 햇빛을 차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⑤ 예상치 못한 벽이 생겨나 자신의 그림자를 잃어버리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

4.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화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성장을 돕는 매개체이다.
② 화자가 현재 처한 구체적인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제시한다.
③ 화자가 겪고 있는 외부적인 고난이나 시련의 상황을 의미한다.
④ 화자가 어두운 현실을 벗어나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다.
⑤ 화자로 하여금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깨닫게 하는 부정적 대상이다.

5. ㉡의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① 벽 너머의 새로운 세상으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② 바람이 잦아들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온전히 휴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해가 떠올라야만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어두운 밤이 주는 짙은 두려움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⑤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높다란 벽이 아침이 되면 마법처럼 사라지기 때문이다.

6.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연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화자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 보게 된 까닭이 드러난다.

① 1연: 화자의 그림자가 평면에서 입체적으로 일어난 상황이 제시된 부분
② 2연: 화자와 그림자가 시선을 교환하며 서로를 인지하게 된 부분
③ 3연: 외부의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부분
④ 4연: 그림자를 만나기 위해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게 된 부분
⑤ 5연: 화자가 겪은 모든 긍정적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밝혀진 부분

7. 이 시를 <보기>와 같이 다른 화자로 설정하여 쓸 때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알맞지 <u>않은</u> 것은?

<보기>

내가 고른 화자는 '벽'이야. 벽은 딱딱한 겉모습과 달리 늘 나무 곁에 서서 나무의 성장을 다정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존재야.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무 앞을 가리게 되어 나무에게 미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거야.

① 새로운 화자인 '벽'은 현재 나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② 화자가 '나무'에서 '벽'으로 바뀌더라도 원작의 주제 의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여 썼는가?
③ 화자인 '벽'은 나무 앞을 가리게 된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 내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④ 화자인 '벽'은 나무를 지켜보면서, 또 나무를 가리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⑤ 화자인 '벽'은 자신이 느끼는 미안함이나 다정한 마음을 어떤 어조나 말투로 표현할 것인가?

8. 시적 화자에게 '그림자'가 가지는 의미로 알맞은 것은?

① 화자가 가진 내면의 어두운 상처와 콤플렉스를 부각하는 존재
② 화자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구원자
③ 화자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고 시련을 안겨주는 부정적인 장애물
④ 화자가 자신과 다른 타인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
⑤ 화자가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만드는 긍정적 대상

무단배포금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9. 이 시를 <보기>와 비교할 때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쿵쾅쿵쾅 소음과 함께
높다란 벽이 들어선 후

하루 종일 빈 벽만
마주 보고 있는 나무

탁 트인 하늘도 못 보고
저 멀리 산도 못 보네

사람처럼 이사도 못 가고
그저 가만히 서 있네

벽에 드리운 나무 그림자만
나무를 위로해 주네

① 이 시는 화자가 관찰자의 입장에 서 있고, <보기>는 화자가 직접 작품 속에 등장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② 이 시와 <보기> 모두 화자가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③ 이 시는 높다란 벽을 절대적인 예찬의 대상으로 삼는 반면, <보기>는 벽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인식한다.
④ 이 시와 <보기>는 모두 시적 화자가 '나무'로 설정되어 독자에게 자연 친화적인 친근감을 준다.
⑤ 이 시는 대상이 직접 화자가 되어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반면, <보기>는 관찰자인 화자를 통해 대상의 처지가 쓸쓸하게 그려진다.

10. 이 시의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자연의 거대한 섭리에 순응하며 아무런 욕심 없이 살아가는 무소유의 태도
② 자신을 가로막는 시련이나 장애물 속에서도 새로운 긍정적인 가치를 찾아내는 태도
③ 부당한 외부의 억압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고자 하는 저항적 태도
④ 타인과의 소모적인 갈등을 피하고 평화롭게 서로 공존하고자 하는 타협적 태도
⑤ 지나간 어두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적인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진취적 태도

무단배포금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사람이 아닌 자연물인 '나무'를 의인화하여 시에서 말하는 주체로 설정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① '나'라는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등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관찰자가 아니라 화자 자신이 겪은 일을 고백하는 형태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시의 화자는 사람이 아닌 '나무'이므로 시인 자신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인물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화자는 벽이 생긴 후 나타난 자신의 그림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가로막은 존재를 원망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 정답 ③

3연에서 화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이 '꽤 괜찮아 보여'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땅에 누워만 있던 그림자가 일어섰다는 것은 벽에 그림자가 비친 상황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나랑 하루 종일 마주 보게 되었다는 것은 그림자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해가 비쳐야 그림자가 다시 생기므로 그림자와 만나기 위해 내일을 기다리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이러한 모든 긍정적인 변화가 내 앞에 높다란 벽이 생기고부터 일어난 일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정답 ③

높다란 벽이 생기고부터 그림자가 일어서서 자신과 마주 보게 된 상황이므로 적절하다.

① 앞을 가로막는 벽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바람에 흔들리지만 이를 꽤 괜찮다고 긍정적으로 넘기고 있으며 절망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햇빛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나무들과 경쟁하는 모습은 시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벽이 생김으로써 그림자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체적으로 마주 보게 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 정답 ③

나무인 화자를 흔들리게 하는 '바람'은 화자에게 가해지는 외부적 시련이나 고난을 상징하므로 적절하다.

① 바람은 나무를 흔들리게 하는 요소이므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매개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바람 자체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시어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화자가 내일을 꿈꾸게 하는 원동력은 그림자와 마주하는 경험이지 바람 자체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화자는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꽤 괜찮아 보여'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초라한 처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정답 ③

해가 비쳐야만 벽에 자신의 그림자가 생겨나고, 그 그림자와 마주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벽 너머로 떠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은 시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다시 보기 위함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어두운 밤에 대한 두려움이나 외로움은 시에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벽은 화자 앞에 계속 존재하는 대상이며 아침이 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6. 정답 ⑤

5연의 '그게 다 내 앞에 / 높다란 벽이 생기고부터야'에서 그림자와 마주 보게 된 까닭(벽이 생김)이 명확히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① 1연은 그림자가 일어난 상황 자체를 보여줄 뿐, 마주 보게 된 까닭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

않다.
② 2연은 그림자와 마주 보게 된 결과적 상황만 제시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3연은 바람에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하는 내용이므로 마주 보게 된 까닭과는 무관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4연은 내일을 기다리는 태도를 보여줄 뿐 마주 보게 된 원인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7. 정답 ②
시에서 화자가 바뀌면 시적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정서가 달라지므로 주제나 분위기 역시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제나 분위기를 무조건 똑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화자를 바꾸어 쓰는 활동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화자가 달라지면 화자가 처한 상황도 달라지므로 상황에 대한 설정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적절하다.
③ 화자인 벽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생각하는지 구체화해야 하므로 적절하다.
④ 화자인 벽이 느끼는 다정함이나 미안함 등의 감정을 시에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해야 하므로 적절하다.
⑤ 화자의 성격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말투(어조)를 선택해야 하므로 적절하다.

8. 정답 ⑤
화자는 그림자를 통해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 보고 '꽤 괜찮아 보여'라고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그림자는 화자에게 어두운 상처를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긍정하게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그림자를 통해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으나, 그림자 자체가 현실에서 도피하게 해주는 절대적인 구원자로 묘사되지는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그림자는 화자가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긍정적 원동력이므로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화자는 그림자를 통해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과 대면하고 있으므로 타인과의 소통을 돕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⑤
이 시는 '나무' 자체가 화자가 되어 벽으로 인해 생긴 그림자를 통해 자신을 긍정하게 된 반면, <보기>는 관찰자인 화자가 벽에 가로막힌 나무의 고립되고 쓸쓸한 처지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이 시는 나무가 직접 화자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보기>는 관찰자가 밖에서 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므로 두 시의 화자 설정이 뒤바뀐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두 시 모두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이 시에서 벽은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계기일 뿐 예찬의 대상이 아니며, <보기>에서도 벽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이 시의 화자는 '나무'이지만, <보기>의 화자는 나무를 밖에서 바라보는 관찰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정답 ②
시의 화자는 '높다란 벽'이라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림자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자연의 섭리나 무소유의 삶에 대한 내용은 시의 문맥에서 전혀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벽이라는 장애물이 등장하지만 이에 분노하여 맞서 싸우거나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타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타협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 시의 주제와 거리가 멀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내일을 기다리는 태도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과거를 잊고 거창한 미래를 개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다시 만나기 위한 소박한 기다림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문제 등 콘텐츠 내 궁금한 점은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의
일대일 문의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www.namuacademy.com